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배포일시	2020. 3. 17(화) 총 9대(본문7)	
담당 부서	광역교통 정책과	담당자	• 과장 손덕환, 서기관 천재민, 주무관 이상화, 정미경 • ☎ (044) 201-5045, 5046, 5047, 5051	
	광역버스과	담당자	• 과장 박문수, 사무관 박선동, 주무관 안갑순 • ☎ (044) 201-5065, 5069, 5070	
	광역교통 요금과	담당자	• 과장 장구중, 사무관 유찬호, 주무관 김재형 • ☎ (044) 201-5080, 5082, 5081	
	광역시설 운영과	담당자	• 과장 이우제, 서기관 홍철, 주무관 최규열 • ☎ (044) 201-5100, 5102, 5101	
	간선급행버스 체계과	담당자	• 과장 남동경, 사무관 유지현, 주무관 김병근 • ☎ (044) 201-5115, 5121, 5120	
	광역환승 시설과	담당자	• 과장 이경재, 사무관 장상준, 주무관 이경근 • ☎ (044) 201-5130, 5134, 5138	
보 도 일 시		2020년 3월 1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1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광역교통 예산,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6,829억원 투자
- ‘광역교통 2030’ 본격 추진,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2020년 제1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개최(서면, '20.2.25~3.13)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금년 업무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대책지구 지정,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광역버스 서비스 향상 등의 단기 대책과 함께 관련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광역교통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 광역급행버스(M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 수도권에 국한되어 운행하던 M버스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시행규칙 개정 '19.12, 수요조사 ~'20.4.3)하고, 신도시 등 교통불편 지역,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M버스 노선을 확충(35→44개 노선)할 계획이다.
- 출퇴근 시간 혼잡 해소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증차, 증회 지원사업(26대)과 함께 M버스 예약제 노선도 확대(8개→20개)한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9개 노선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재정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운영한다.
- 친환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발생이 없는 한국형 2층 전기버스를 혼잡노선을 중심으로 공급(20대, '20.下)하고, 경유버스 Zero化를 위해 대폐차 및 신규 노선 개설, 증차 시 CNG,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의무화하여 올해까지 친환경 버스 보급률을 95%로 확대할 계획이다.

□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전국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실시('19, 2만 명 → '20, 7만 명)한다.

- 저소득층 청년 마일리지 혜택 확대*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교통 유발부담금 공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모바일페이를 도입

하는 등 이용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1회 대중교통비 수준별 마일리지 한도 확대 : 회당 250~450원 → 350원~650원

- 이와 함께, 이용기간, 시간대, 학생·직장인 등 이용자 특성에 따라 할인권·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공유 모빌리티와도 연계하는 방식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②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예산은 '19년보다 47% 증가된 6,69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4분기 중 2,503억원(37%), 상반기 중 4,799억원(71%)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광역·도시철도, 트램 등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 광역철도는 하남선(서울5호선 연장, 7.7km) 적기 개통('20.12월)을 통해 수도권 동부 지역의 철도서비스를 개선하고, 서울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전구간 상반기 착공), 옥정-포천('19.1월 예타면제, '20.상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계속사업도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 도시철도는 인천1호선 송도 연장(7.4km)을 연내 개통('20.12월)하고, 검단 연장(6.9km)은 상반기 중 착공('20.6월)한다. 광주2호선, 양산도시 철도 등 지방 대도시권의 도시철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전2호선 및 위례신도시 트램 기본계획 수립 등 트램 사업도 본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 광역도로는 대전산성-구례(1.0km), 계룡신도안-대전세동(2.0km) 광역 도로 등 2개 사업을 적기 준공('20.12월)하고, 서대전IC-두계3가(5.5km,

'20.4월), 다산-왜관(9.6km, '20.6월), 인천거침도-약암리(6.4km, '20.10월), 초정-화명(3.6km, '20.12월) 등 4개의 광역도로 사업은 연내 착공한다.

- **혼잡도로**는 산성터널(3.2km, '20.6월), 삼화맨션-과정교차로(0.4km, '20.12월), 동천제방(0.6km, '20.12월) 등 3개 개선사업을 적기 준공하고, 상무지구-침단산단(4.6km, '20.4월), 식만~사상(8.2km, '20.6월) 등 2개 혼잡도로는 상반기 착공하는 한편,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21~'25) 수립('20.12월)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광역도로, 혼잡도로 20개 계속사업(광역도로 7개 46.6km, 혼잡도로 13개 63.2km)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3 연계·환승체계 구축

- 환승센터 중심의 편리한 연계·환승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편안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권역별 주요 거점 환승센터를 착공*하고, 수도권 주요 환승센터(청계산입구역, DMC역, 강일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20.8월)하는 등 본격적인 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 * 유성터미널(대전1호선,터미널)·울산역(KTX)·사상역(부산2호선,김해경전철)·태화강역(동해선)
- 특히, 서울역('20.2월 착수), 청량리역('20.4월 착수) 등 GTX가 교차하고, 여러 철도노선이 연계되는 거점역의 환승센터 구축 구상을 마련하여 연계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강북지역의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보관대, 충전소 등 공유 모빌리티

인프라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20.11월)하고, 환승시설 설치 시 접근성도 평가할 계획이다.

【 광역철도역에 도입된 공유 모빌리티 시설(미국 LA Metro) 】



① 전기차 카셰어링 충전 ②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③ 라이드셰어링 승하차시설

□ S-BRT, 고속btx와 같은 새로운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통해 광역대중 교통의 정시성을 강화한다.

○ 계양,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GTX 연계 환승수단, 창원 등 지역 거점도시의 도심 간선교통수단으로 S-BRT를 도입하고, 세종 BRT는 굴절버스, 첨단정류장, 우선신호 도입을 통해 고급화한다.

○ 주요 간선도로의 전용차로와 종점부 연계 환승시설을 통해 고속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btx 사업은 수도권 동서축 등 시범 노선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20.8월)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 트램, BRT(간선급행 버스체계), 버스 등 연계 교통체계를 확립(20.12월, 방안마련)하여 거점역에 대한 접근시간을 단축하고, GTX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④ 제도 혁신 및 미래 대비

□ 특별대책지구 도입,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지구의 광역교통을 혁신한다.

- 철도 등 주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이행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버스 운영과 같은 단기간에 효과가 있는 보완대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향후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에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기 등 기존 신도시의 광역교통도 함께 개선이 가능한 상생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되도록 수립한다.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함께 광역버스, BRT, 환승센터 등 단기 내 이행가능한 대중교통 운영대책도 포함하여 입주 초기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일정】

구분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하남 교산	'19. 10월	'20. 上
과천 과천	'19. 10월	'20. 上
인천 계양	'19. 10월	'20. 上
남양주 왕숙	'19. 10월	'20. 上
고양 창릉	'20. 3월	'20. 下
부천 대장	'20. 上	'20. 下

- 쪼개기, 인접 지구 개발 등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회피 사례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면적 기준(기존 100만m² 이상 → 개선 50만m² 이상) 및 수용인구 기준(기존 2만명 이상 → 개선 1만명 이상)을 강화하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광역교통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을 수립하여 광역교통 정책의 20년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을 통해 구체적인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구상하여,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고시한다.

- 이러한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포터즈' 등 소통 채널도 확보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까이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광역교통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형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지난해 ‘광역교통 2030’ 발표를 통해 광역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 “올해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장기적인 계획의 구상은 물론, 단기적인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체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천재민 서기관(☎ 044-201-50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S-BRT

- 3기 신도시 : GTX 연계환승형
- 지역거점도시 : 도심간선형
- 세종 BRT : 굴절버스, 첨단정류장, 우선신호

고속 btx

- 주요 간선도로 전용차로
- 도심·지하철 연계환승
- 시범노선 타당성 분석('20.8)

광역버스 서비스 혁신

노선 확충	예약제 확대	준공영제
'19: 35, '20: 44	'19: 8, '20: 20	9개 노선 시범사업 추진 ('20.7)

환승센터 공유모빌리티

- 보관대, 충전소 등 인프라설치기준 마련
- 환승센터 설치시 접근성 평가

환승센터

- 서울역,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상
- 주요거점 복합환승센터 착공 (대전유성터미널, 울산역 등)
- 청계산입구역, 강일역, DMC역 사전타당성 조사

광역·도시철도

- 개통 : 하남선 복선전철 (서울5호선 연장, '20.12) 인천 1호선 송도연장('20.12)
- 착공 : 인천 1호선 검단연장('20.6)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특별대책지구 지정, 보완대책 시행
기존, 3기 신도시 상생의 교통대책 마련

친환경 대중교통

- 한국형 2층 전기버스 공급(20대)
- CNG, 전기버스로 전환(친환경버스 보급률 95%)

참고 2

2020년도 준공·착공 사업

구분	사업명	시기	총 사업비 (`20년 예산)	사업내용
개통	하남선 복선전철	'20.12월	9,749억원 (`19년 이월예산)	L=7.7km(서울 상일동~경기 하남), 정거장 5개소
	인천 1호선 송도연장	'20.12월	8,511억원 (241억원)	L=0.82km, 정거장 1개소 (인천 국제업무지구~송도랜드마크역)
	대전산성-구례 광역도로	'20.12월	583억원 (279억원)	L=1.04km, 4차로 신설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20.12월	222억원 (111억원)	L=1.96km, 4차로 신설
	산성터널(금정측) 혼잡도로	'20.06월	3,303억원 (1,327억원)	L=3.24km, 4~6차로 신설
	삼화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20.12월	201억원 (102억원)	L=0.4km, 6차로 신설
	동천제방(우안제) 혼잡도로	'20.12월	226억원 (107억원)	L=0.64km, 4→6차로 확장
착공	인천 1호선 검단연장	'20.06월	7,277억원 (지방비등 활용)	L=6.9km(인천 굴현동~검단신도시), 정거장 3개소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공사	'20.06월	2,379억원 (11,89억원)	L=9.6km, 4차로 신설
	인천거침도-약암리 광역도로	'20.10월	4,66억원 (233억원)	L=6.4km, 2→4차로 확장
	서대전IC-두계3가 광역도로	'20.04월	652억원 (326억원)	L=5.54km, 4→6차로 확장
	조정-화명 광역도로	'20.12월	2,646억원 (1,162억원)	L=3.6km, 4차로 신설
	식만~사상 혼잡도로	'20.06월	3,956억원 (1,609억원)	L=8.24km, 4차로 신설
	상무지구-첨단산단 혼잡도로	'20.04월	1,951억원 (588억원)	L=4.59km, 6차로 신설
	강남권 복합환승센터 건설사업	'20.下	협의 중 (지방비등 활용)	복합환승센터(철도통합역사, 버스정류장, 주차장, 공공·상업시설 등)
	유성터미널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	'20.上	7,895억원 (71억원)	여객터미널(32,693㎡), BRT환승센터(5,300㎡), 행복주택 등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	'20.07월	3,125억원 (30억원)	환승센터(75,480㎡, 쇼핑몰 등), 환승시설(버스, 택시)
	태화강역 환승센터	'20.10월	107억원 (32억원)	버스 회차시설(9,000㎡), 주차장(6,150㎡, 163면) 등
	사상역 환승센터	'20.11월	107억원 (32억원)	무빙워크(150m), E/S, E/L
	수원-구로 광역BRT	'20.09월	498억원 (50억원)	L=19.1km (수원 장안구청~구로 디지털단지역)
서면-충무 도시BRT(부산)	'20.09월	236억원 (49억)	L=8.6km (부산 서면교차로~충무교차로)	